

<동정자료>

## 박선호 1차관, “중기 성장엔진 가속 위해 규제개혁 노력” 강조 15일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서 현장애로 청취 및 해소노력 당부

-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15일(금)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합동 간담회에서 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애로 건의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.
  - 특히 해외공사 수행 시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 공사 (15일 이내)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,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.
  -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건의자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,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.
- 이 자리에서 박선호 1차관은 “그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”며,
  - “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엔진을 가속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 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,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2019. 11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